

정다산 문학관의 일 고찰*

李 先 漢**

목 차

- I. 서 론 **
- II. 다산의 문학관
 - 1. “물태인정(物態人情)”론
 - 2. 문도관(文道觀)
 - 3. 민족적 문학관
- III. 시가 작품의 사상적 내용
- IV. 시가 작품의 예술성
- V. 결 론

I. 서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문학창작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옴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다산이 거둔 문학성과와 한국문학에서 다산이 차지하고 있는 문학사적 지위에 비해 다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산 연구에서 미미한 점들을 연구 보충해야 할 것이다.

한 작가의 창작에 대한 연구에 앞서 우선 그 작가의 문학적 견해, 즉 문학사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자못 중요하다. 문학적 견해는 그 작가의 창작을 결정하며, 바로 그러한 미학적 견해를 심층 연구함으로써 그 작가의 창작경향 및 창작성과를 옹계 파악할 수 있다. 다산의 문학적 견해는 그의 실학사상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는 “實事求是”, “利用厚生”, “經世致用”의 실학사상에 토대하여 문학을 사회의 실생활에 “쓸모있는” 학문으로 간주하고 조선 말기 보수적

* 이 논문은 1995년도 녹산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경북대학 동방학부 교수

문인들의 고루한 문풍과 醇正의 문학에 반기를 들고 나섰으며 문학창작 실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기본 명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한국 고대중세 문론을 한층 풍부히 하였다. 필자는 다산의 문학사상을 그의 철학사상과 사회적 견해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동시에 실험파로서의 그의 문학견해의 민족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다산은 그의 문학적 견해를 창작실천을 통해 실현했다. 그의 문학작품, 정확히 말해서 시가작품들은 그의 문학관의 예술적 구현이다. 다산은 사회적 모순과 계층간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말기에 활동하였다. 이씨 조선은 17세기 후반 18세기에 들어 서면서 농업, 수공업, 광업 등 사회생산이 점차 증대되고 국내 상업과 대외무역이 발전해 감에 따라 상품화폐 경제가 나타나고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사회경제 영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천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화 시켰고 농민들의 생활을 도탄 속으로 몰아넣었다. 농민들은 전정(田政), 군정(軍政)에 의한 착취를 당하는 외에도 환곡(還谷)에 의한 고리대적 착취까지 받게 되었다. 조선말기의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목격한 정다산의 문학창작에는 작품마다에 시대적 현실이 거울처럼 비쳐지고 있다. 정다산의 창작적 성과는 그의 문학작품의 사상적 내용에서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산 작품의 농민에 대한 동정,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고발, 애국애족의 정신 등을 둘러싸고 그의 시가작품을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산의 문학창작은 생동하는 예술적 감염력으로 하여 더욱 감명깊다. 다산의 문학에 대한 깊은 소양, 그의 문학적 견해의 해박성, 현실에 대한 민감한 통찰력 등으로 하여 독특한 개성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 다산은 문학창작을 통하여 시대의 본질과 사회 각 계층의 전형들을 창조하였으며 그의 사회개혁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애국애족의 심회를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문학작품은 한 시대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다산의 문학창작의 예술적 측면에 대해 논술함에 있어서 사실주의적인 묘사와 전형의 창조, 이러한 것을 위한 모든 문학적 수법의 능란한 구사 등에 역점을 두고 그의 문학작품의 예술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II. 다산의 문학관

1. “물태인정(物態人情)”론

문학과 사회생활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문학이론상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문학의 본질과 특성, 문학창작과정, 문학의 사회적 역할 등을 파악함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학과 현실의 관계, 즉 문학의 본원문제에 있어서 다산은, 문학은 객관적인 자연사물과 인간의 사회생활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다산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문학은 “물태인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학은 “물태에 의거하고 인정에서 발원하므로 …… 천지간에서 훌륭한 문장은 물태인정이 아닌 것이 없다”¹⁾ 고 말하였다. 그는 “문체론(文體論)”이란 글에서 “물태”란 무엇이며 “인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동하게 해석하였다. 그는 “물태”란 “단단한 것은 터지고 잠복해 있던 것은 일어나 준동하고 가득 쌓였던 것은 흩어지고 엷드렸던 것은 솟구쳐 일어나서 각양각종 천태만상을 이룬”²⁾ 변화무쌍한 객관적인 자연사물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인정”이란 “청렴한 자가 완악해지고 암전한 자가 욕심사나와지고 부드러운 자가 거칠어지고 조출한 자가 열렬해져서 잡다한 것들로 천태만상을 이룬 …… 이로움과 해로움의 두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³⁾ 인간들의 상호관계, 즉 인간의 사회생활이라고 말하였다. “인정”에 대하여 말할 때 다산은 위기에 직면한 조선말기의 거칠어진 인정세태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지적하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 다산은 또한 문학의 대상인 “물태인정”이 변화함에 따라서 문학의 문체, 그리고 문학의 내용도 필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물태인정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문체가 변화하는 것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며……대체로 모든 사물이 찬 것을 꺼려하며 모든 인정이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문체도 이로운 것이 없으면 변화하는 수 밖에

1) “資於物態，發於人情……天地之間，文章莫如物態人情”(丁若鏞：文體論)

2) “臣嘗觀物態矣，甲者坼，蟄者蠢，鬱蘊隆者舒散，伏者風場，芸芸，千態萬狀”(동상서)

3) “臣嘗觀乎人情矣，廉者頑，恬者欲，柔懦者發，淡泊者熱沸，紛紛穰穰，千態萬象”(동상서)

4) “善觀乎物態人情之變，則文體之變可得而之也……則不出於得失二字，夫冷焉則物不趨之，害焉則人不襁之，失焉則文體可得而變也。”(동상서)

없다”⁴⁾ 고 하였다. 여기서 다산은 문체를 문학의 장르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이 통일된 문학작품의 시대적 품격을 말하고 있다.

문학의 본원문제에 관한 다산의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철학적 견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는 세계만물의 시원을 물질적 실체로서의 “기(氣)”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태극(太極)”을 둘러싸고 전개하였는데 그의 “태극설”은 “태극”을 정신적인 “이(理)”로 해석하는 견해와는 달리 “후세의 이론이 태극을 높이 받들어 정신적인 것으로 만들고 매양 말하기를 이것은 이요, 기가 아니라 하며, 이것은 <무>요, <유>가 아니라고 하는데……사실상 태극이란 천지가 나누어 지기 전의 혼돈상태로서 형체가 있는 것의 시초이며 음과 양의 씨앗이며 만물의 시초이다.”⁶⁾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다산은 “태극”을 “만물의 시초”로서 “유형(有形)”의 “기”로 보았다. 이와같은 철학적 견해는 다산의 문학의 “물태인정”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다산은 또한 인식론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밖에 물질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의 인식은 “이목구비(耳目口)”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그것을 지각하고 사유하여 “심(心)”에 얻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눈이나 귀는 “물체와 나와 서로 접촉하는 길”⁶⁾ 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심은 무형한 것인데 인심이 지각하는 것은 유형의 이목구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목구비의 매개가 없으면 인심은 곧 귀머거리, 장님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본래 무형하고 사물은 유형하니, 이 유형의 것이 눈과 귀에 접촉되지 않으면 어찌 형체가 있는 이를 알 수 있겠는가?”⁷⁾

여기서 다산이 인간의 사유기관을 두뇌가 아닌 “인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비과학적이지만 존재와 의식간의 관계에서 의식은 존재가 “심”에 반영되어서 생기게 된다는 인식론적 견해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동시에 다산의 문학의 “물태인정”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기”라고 하는 물질세계에 대한 견해, 존재와 의식에 대한 견해 등은 의식형태

5) “後也之論, 推尊太極爲形而上之物, 每云是理非氣, 是無非有, …… 太極者, 天地未分之先, 渾敦有形之始, 陰陽之胚胎, 萬物之太初也.”(丁若鏞·易學緒言)

6) “物與我相接其門路”(동상서)

7) “人心無形而人心之所以知覺, 必持有形耳目口, 苟非耳目口爲之津梁, 人必直聾耳, 理本無形而象則有形, 非此有形之接於耳目, 何以知形之理”(동상서)

로서의 문학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산은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문학을 단순히 자연사물과 인간 사회생활의 기계적인 복사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다산은, 문학작품은 객관과 주관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물태인정” 그 자체가 결코 문학적이지 아니라 반드시 “이목구비”의 감각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것을 지각하고 그것이 “인심”에서 주관적인 작용을 해야만 문학작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문학작품의 생산과정에는 반드시 “인심”이 “사물과 시비와 접촉하고 이로온 것과 해로운 것이 서로 한 형태를 이루어”⁸⁾ 자연과 인간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식을 가진 다음 형상적 사유를 거쳐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하늘 땅 사이의 정리를 통달하고 만물의 모든 정서를 두루 갖추어서 그 지식이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땅을 떠 메며 바다처럼 포용하며 구름처럼 멩게 멩게 멩치고 우뢰처럼 용트림하여 마침내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것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이것과 더불어 서로 파고 들고 때로는 흔들며 격동을 시킨다. 이와같이 내부에 쌓였던 것이 외부로 발표되면 그 문장의 힘은 거세 찬 물결처럼 술렁거리고 번개처럼 번쩍거리 가까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멀리는 하늘 땅을 움직이며 귀신까지 감동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문장이다.”⁹⁾

여기서 다산은 객관현실이 “인심”에 반영되어 일으킨 형상적 사유의 과정을 자연만물의 변화운동에 비유하여 생동하는 필치로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문학작품이란 바로 “바다처럼 포용하며 구름처럼 멩게멩게 멩치고 우뢰처럼 용트림”하면서 “서로 파고 들고 서로 부딪치고 때로 흔드는” 상상, 연상 등 형상적 사유를 거친 결과 이룩된다는 것이다. 형상적 사유에는 작가의 풍부한 감정이 동반되는데 그가 말한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형상적 사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작가의 창작충동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현실은 작가로 하여금 심령의 깊은 곳을 자극하여 창작충동을 불러 일으키며 마침내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쏟아 놓음으로써 “가까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멀리는 하

8) “與物相遇，與事相接，與是非相觸，與利害相形”(丁若鏞：爲李仁榮贈言)

9) “通天地之正理，周萬物之衆情，其知識之積於中也，地負而海涵，雲鬱而雷蟠，有不可以終者，然後有與之相夾者，或相入焉，或相觸焉，撓之焉，邀之焉，則其宜之，而發於外者，渤 汪濊粲爛煜，邇之可以感人，遠之可以動天地，而格鬼神”(丁若鏞：五學論)

늘 땅을 움직이며 귀신까지 격동시키는” 훌륭한 작품을 써내게 된다는 것이다.

다산의 문학의 본원문제에 있어서 내놓은 “물태인정”론은 비교적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다산 이전에 최자(崔滋),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圭報) 등 선배작가들도 “탁물우의(托物寓意)”, “촉경생정(觸景生情)”의 견해를 내놓았지만 다산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였다. “물태인정”에 관한 다산의 견해는 한국 고전문론에 있어서 중대한 기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문도관(文道觀)

다산의 문학사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의 재도(載道)적 문학관이다. 일부의 연구들에서 다산의 재도문학에 대하여 거론되었으나 그의 재도적 문학은 그의 실학사상가로서의 사회적 견해와의 연관 속에서 깊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도”라고 하면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안민(安民)”, “평천하(平天下)”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주장 및 사회윤리와 도덕적 관념을 지칭함은 통설이지만 작가들이 주장한 “도”의 구체적 함의는 부동하였다. 다산이 주장한 “도”에 대해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다산의 문도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차적인 문제가 된다.

다산이 주장한 “도”는 그의 실학사상, 즉 사회정치적 견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산은 사회정치적 견해에서 요순과 같은 고대 임금의 정치를 이상화하여 도덕적 규범의 모범으로 삼고 사회발전의 요인을 나라가 “예치(禮治)”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의 도덕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고대 이상사회에서는 예(禮)로써 정치를 하였는데 후세에 내려 오면서 세상이 쇠락하여져서 “왕도(王道)”와 “예치”는 파괴되고 “법치(法治)”와 “패도(道)”의 사회로 전락되었다는 것이다. 다산이 주장한 도덕적 규범들의 기초는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중심으로 한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는 절대적 “왕권”을 부정하고 민주와 민권을 주장한 진보적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는 “임금은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¹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백성의 의지에 의해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법

10) “牧爲民有”(丁若鏞:湯論)

11) “法皆便民”(동상서)

은 모두 백성에게 이로워야 하므로”¹¹⁾ 백성을 수탈하는 “전정”, “군정”, “환곡”의 3포법 등은 철폐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봉건사회에서 절대화 되어 온 신분차별, 적서차별, 지방차별 등을 철폐하고 인재등용의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다산이 말한 “도”가 임금의 왕권이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전통적 유교의 절대적 “왕권”, 그리고 “이(理)”를 극대화시켜 공리공담만 하는 도학과의 “도”와는 구분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산이 “옛 성현의 도(古聖賢之道)”를 내세운 목적은 고대의 이상사회에 단순히 복귀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 성현의 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 조기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제반 제도를 개혁하여 “넓은 우리 나라를 새롭게”¹²⁾ 하는데 있었다. 다산이 “문학은 도를 담아야 한다(文所以載道)”¹³⁾ 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도”와 직결되어 있다.

다산의 문도관이 도학파들의 문도관과 근본적으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다산이나 도학파들은 “재도적 문학”을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그들 문도관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학파들은 “이”를 일체의 근본으로 이해하면서 “文以載道”에서 “文”은 “외도(外道)”이며 심지어는 “작문해도(作文害道)”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다산의 재도적 문학관과는 본질적인 면에서 구별된다. 다산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 및 공리성의 견지에서 재도적 문학을 강조하였지 결코 도학자들처럼 “문”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는 “문”과 “도”의 관계에서 “문”은 “도”를 담은 그릇으로써 “도”는 근본이 되고 “문”은 “도”를 위해서 복무해야 하고 “도”를 떠난 문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하였다. 그는 “시를 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법을 밝혀서 스스로 깨닫게도 하고 지난날의 교훈을 이야기하여 스스로 경계하게도 하고 당시의 정세와 정치를 지적하여 스스로 고치게도 하기 때문이다”¹⁴⁾ 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글들에서 “착한 일을 찬미하고 악한 일을 풍자하는 것이 시를 짓는 근본인 바”¹⁵⁾,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어지러운 시국을 가슴아파하지 않고 퇴폐한 풍속을 통분히 여기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며 착한 것을 찬미하지 않고 악한

12) “新我之邦”(丁若鏞:牧民心書)

13) “文所以載道”(丁若鏞:西園遺稿序)

14) “詩之爲道, 或陳古義使之悟之, 或陳前鑒使之戒之, 或直陳時政使之改之.”(丁若鏞:樂書)

15) “善則美之, 惡則刺之, 此詩之所以作也.”(丁若鏞:詩經講義)

것을 풍자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¹⁶⁾ 라고 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다산은 문학작품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강조하고 있는 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목적은 “미자권징(美刺勸懲)”하여 “스스로 깨닫게”도 하고 “스스로 경계하게도” 하고 “스스로 고치게도 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것과 인연이 없는 것은 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산은 그의 상술한 재도적 문학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작가의 사상, 품덕, 정조의 수양이 문학창작에서 노는 역할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입지(立志)의 사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시란 지(志)를 표현한 것이다.”¹⁶⁾ 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란 “도”와 통일된 것으로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이치를 알고 인심과 도심의 분별을 살펴서”¹⁷⁾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하려는”¹⁸⁾ 작가의 도덕적 품모, 사상적 지향, 세계관인 것이다. 다산은 문학창작에서 노는 “지”의 역할을 아주 중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가 본래 비루하다면 억지로 고상한 말을 꾸미려고 해도 도리에 어긋나게 되며 지가 본래 험애하다면 억지로 호방한 소리를 하려고 해도 사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를 배우려고 하면서 그 지를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똥무더기에서 샘물을 찾으며 마른 나무더미에서 아름답고 싱그러운 꽃을 찾아 내려는 것과 같아서 평생을 두고 애를 써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¹⁹⁾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를 바로 세우는 것을 문학창작의 근본이라고 하는가? 다산에 의하면 “문품(文品)은 “인품(人品),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수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품”이 높아야 “문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산은, “인품”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맑게 한 후에야 사람이 맑게 비치듯 것처럼 문학작품도 빛이 나 고상한 말을 하여 “도”에 어긋나지 않고 호방한 소리를 하여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문학에 뜻을 둔 후배들에게 주는 글에서 “뜻을 바로 세우고(立志)” “인품”을 닦는 데 정력을 기울일 것을 거

16) “不愛君憂國，非詩也，不傷時憤俗，非詩也，非有美刺勸懲之意，非詩也”(丁若鏞:寄淵兒)

17) “詩者言志也”(丁若鏞:爲草衣僧意洵贈言)

18) “憂世恤民”(丁若鏞:示兩兒)

19) “志本卑，雖強作清高之言，不成理致，志本寡陋，雖強做曠達之言，不切事情，學詩而不稽其志，猶歷清泉於糞壤，求奇芬於臭穢，畢世而不可得也。”(丁若鏞:爲草衣僧意洵贈言)

답 강조하였다. 문학에 뜻을 둔 변지의(邊知意)라는 젊은이가 천리길을 걸어 그를 찾아 왔을 때 그는 나무를 가리키며 문학창작에서 “인품”의 수양을 초목을 가꾸는데 비기어 형상적으로 말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글을 쓴다는 것은 풀이나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나 같다. 나무뿌리를 북돋우듯 마음을 바로 잡고 줄거리를 바로 세우듯 행동을 똑똑히 하고 자기 몸을 수양하며 진액이 오르듯 경전을 연구하고 예법을 연구하며 가지와 잎이 무성하듯 견문을 넓히고 예술을 익혀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속에 든든한 축적이 생겨 그 포부를 표현하면 그것이 곧 글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보고 훌륭한 문장이라고 말할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문장이다.”²⁰⁾

다산은 그의 실학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말기까지 유행되어 온 도학과(道學波)와 사장(詞章波)들의 문론(文論) 주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산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다만 음풍영월하며 바다이나 술을 노래하여 겨우 운이나 맞추는 서너집밖에 없는 시골의 고루한 훈장들이나 하는”²¹⁾ 고루한 문인들, 그리고 “도”만 외치고 공리공담만 하는 성리학자들인 도학과들을 두루 비판하였다. 다산은 “오학론(五學論)”에서 당시 실천적 성격을 말살하고 공리공담을 일삼는 성리학(性理學), “가깝게는 마음을 반성하여 성품을 닦는 것을 관심하지 않고 멀리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유의하지도 않으면서”²²⁾, “글자 뜻이나 밝히고 문구의 구절이나 바로 잡는”²³⁾ 훈고학(訓古學), 입으로는 유교의 경전을 말하나 “실상은 남의 글귀를 표절하여 붉은 것이나 뺨고 푸른 것이나 빼내서 잠간 남의 이목이나 현혹시키는”²⁴⁾ 과거학(科擧學), “화려한 겉치레만 하고 진실한 내용이 없는”²⁵⁾ 문장학(文章學), “학문이 아니고 사람을 미혹시키는”²⁶⁾ 술수학(術數學)은 “우리 도에 대하여 참으로 큰 해독이다”²⁷⁾ 라고 낙인하면서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20) “人之有文章，猶草木之有榮華耳，種樹之人，方其種之也，培其根，安其幹，已矣，既而行其津液敷其條葉，而榮華於是乎發焉，榮華不可以奪取之也，誠意正心，以培其根，篤行修身以安其幹”(丁若鏞：爲陽德人邊知意贈言)

21) “吟風月，譚碁說酒，苟能押韻者，此三家村裏村夫子之觀也”(丁若鏞：寄淵兒)

22) “邇之不慮乎治心而繕性，遠之不求乎輔世而長民”(丁若鏞：五學論)

23) “唯古訓章句”(동상서)

24) “夷考其實，剽字竊句，抽朱擢綠，以眩一時之目”(동상서)

25) “率皆華而無實，奇而不正”(동상서)

26) “非學也，惑也”(동상서)

27) “吾道之鉅害也”(동상서)

다산은 “문”과 “도”의 관계에서 “도”를 문 의 근본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문” 자체의 작용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도학파들의 “도”만 있으면 “문”은 자연히 있게 되고 “도”가 곧 “문”이라는 견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산은 “문”의 특수적 작용을 정당히 이해하였으며 “문”의 독립성을 인정하였다. 다산은 어떠한 “문”이나 다 “도”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이 높은 작품만이 “도”를 담아 “교화”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에 “문”, 즉 문학작품의 예술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치 초목을 가꾸는 것처럼 예술적 기량의 제고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과 “도”의 양자에서 “도”를 더 중히 여겼는데 이것은 그가 당시 사회현실을 외면한 보수적 문인들의 “순정”의 문학을 비판하고 문단의 기틀을 바로 잡으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서 그의 강렬한 사회비판의식, 현실 참여의식과 관련된다.

3. 민족적 문학관

다산의 문학 견해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 그의 민족적 자주의식이다. 다산은 문학창작에서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리는 데 대한 문제를 각별히 중시하고 “나는 조선사람, 조선시를 즐겨 지으리”²⁸⁾ 라고 선언하였다. 문학의 깨끗한 진수를 계승하여 민족적인 문학을 개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산이 활동하고 있던 18세기말-19세기 초엽에도 보수적 문인들의 사대주의 사상은 민족문학의 건전한 발전 앞에 가로 놓인 주요한 장애물의 하나였다. 다산은 문학의 민족성을 살리는데 있어서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사대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민족적 입장을 올바르게 세워 민족의 주체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다산은 문학 창작에서 모방주의와 형식주의의 사상적 근원이 바로 사대주의에 있는 바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자기 앞에 나선 고상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견해로서 그 이른바 중국이라는 중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 중이라 하며 동국이라는 동은 또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 동이라 하는지 모를 일이다. 대체로 해가 머리 위에 떴을 때를 오시라 하는데 이 오시로부터 해뜨는 시

28)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丁若鏞:老人一快事六首效香山體)

간과 해지는 시간과의 사이가 동일하다면 곧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동과 서의 중간으로 되는 것이며 북극쪽의 지구의 위도의 도수와 남극쪽의 지구의 위도의 도수가 전체 도수의 절반으로 된다면 곧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남과 북의 중간으로 되는 것이다.……다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가리킴인가? 이는 곧 요, 순, 탕의 정치제도상의 전통이 있음을 가리켜 중국이라 함이며 공자, 안자, 자사, 맹자의 학술상의 전통이 있음을 가리켜 중국이라 할뿐이다. 그런데 오늘 중국이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는가? 옛 성인들의 정치제도나 옛 성인들의 학술전통은 우리 동국이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든지 이미 오래다. 지금 다시 먼곳까지 가서 배우려고 할 것이야 무엇이 있겠는가?”²⁹⁾

여기서 다산의 민족 자주주의식이 얼마나 강력하였는가를 알게 된다. 다산은 중국의 것을 무턱대고 외면하지는 않고 이와는 반대로 조선에 이로우면 중국내지 구라파의 선진적인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민족의 자주적 의식을 상실하고 사대주의 사상에만 몰렸어 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다산은 문학창작에서의 모방주의, 형식주의 경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다산은 “수십년내내 일종의 괴이한 이론이 유행되고 있는데 그 논자들은 우리나라 문학을 덮어 놓고 배척하고 있으니……이것은 큰 병통이다.”³⁰⁾ 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문학을 무턱대고 멸시하고 중국의 것을 무조건 숭배하고 모방하는 것은 민족문학의 건설에서 나타난 “큰 변통”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는 당시 형식주의, 모방주의자들이 “원나라, 명나라 시대의 경망한 문인들의 보잘 것 없이 메마른 부스러진 문체를 모방하여 절구와 울시를 지으면서 제단에는 은근히 저 혼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인 것처럼 자부하는 자들은”³¹⁾ “헛되게 정신만 소모하고 세월을 허송할 뿐만 아니라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어 자기 평생

29) “以余觀之，其所謂中國者，吾不知其爲中，而所謂東國者，吾不知其爲東也，夫以日在頂上爲午，而午之距日出入其時刻同焉，則知吾所立，得東西之中矣，北極出地高若干度，而南極入地低若干度，唯得全之半焉，則知吾所立得南北之中矣……卽所謂中國者，何以稱焉，有堯舜禹湯之治謂中國，有孔顏思孟之學謂中國，今所以謂中國者，何存焉，若聖人之治，聖人之學，東國既得而移之矣，復何必求諸遠哉”(丁若鏞·送韓敦理應致使燕序)

30) “數十年來，怪有一種議論，盛斥東方文學……此大病痛”(丁若鏞·寄兒)

31) “取元明間輕妄客，酸寒尖碎之詞，摹擬絕句短律，竊竊然，自負其爲超世文章”(동상서)

을 끝마치고 있는 데 이것은 참으로 이단으로서는 으뜸가는 것이며 세상의 앞길을 위해서 큰 걱정이 된다.”³²⁾ 고 하였다.

하기에 다산은 자기 민족의 특성을 체현한 “조선시”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상 내용상의 민족적 자주의식과 표현 형식상의 독창성의 통일로부터 민족 문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는 민족적인 특성을 구현한 “조선시”는 우선 작품의 내용에서 자기 나라의 현실, 자기 나라의 역사, 자기 나라의 지리, 자기 나라의 문화, 자기 나라 국민의 감정을 반영함으로써 “낯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산은, 문학작품의 내용은 자기 민족의 인간 관계와 그 생활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그 즐거운 바를 선양하고 원망하고 사모하는 바를 나타내며 다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가엽게 여겨 언제나 구원하려고 하나 힘이 모자라고 진흥하려고 하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애타하고 가슴아파하며 차마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야 시라고 할 수 있다.”³³⁾ 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용사(用事)” 이론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는 시가창작에서 용사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의 전통과 현실을 문학창작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는 용사를 주로하되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고사만 늘어놓는 것은 대단히 누추한 일이다. 반드시 삼국사기, 고려사, 국조보감, 여지승람, 징비록, 연려실기술과 기타 우리나라 서적들에서 고사를 찾아내며 또 지방의 현실을 연구하여 시에 인입해야만 그 시가 세상에 남기며 후대에 전하게 될 것이다.”³⁴⁾

다산은, 또한 민족적인 특성을 구현한 “조선시”는 그 형식에서 까다로운 성율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민족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노인의 한가지 즐거운 일”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노인의 한가지 즐거운 일 / 붓 가는대로 미친 말을 적는 것이다 / 까다로운 성율에 얽매이지 않고 / 지리

32) “銷磨精神, 拋擲光陰, 使人鹵莽蔑裂以沒其齒, 誠異端之最, 而世道之鉅憂也”(丁若鏞: 爲李仁榮贈)

33) “或宣揚其樂意, 或導達其怨慕, 其次憂世恤民, 常欲拯無力欲 無財, 彷徨惻傷, 不忍遽捨之意, 方是詩也”(丁若鏞: 示兩兒)

34) “須以用事爲主, 雖然我邦之人, 動用中國之事, 亦是陋品, 須取三國史, 高麗史, 國朝寶鑑, 輿地勝覽, 懲忘錄, 燃黎述, 及他東方文字, 採其事實, 孝其地方, 入於詩用, 然後方可以名世而傳後”(丁若鏞: 寄淵兒)

하게 추고할 필요도 없네 / 흥이 나면 뜻을 움직이고 / 뜻이 떠오르면 즉시 글로 적나니 / 나는 조선 사람 / 조선시를 즐겨 지으리”³⁵⁾. 여기서 그는 민족적인 감정을 표현한 민족적인 형식은 틀에 딱 박힌 까다로운 성율의 규칙에 매어달리지 않고 자기의 흥, 자기의 뜻에 따라 붓 가는대로 자유롭게 작품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한 흥이란 어디까지나 현실생활에서 경험하여 일으킨 민족적인 감정과 정서이며 뜻이란 민족의 자주적인 의식인 것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시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조선사람으로서 조선시를 지어야 한다는 자주적 의식을 간직하고 성율에 구애없이 민족의 감정을 표현할 때만이 “조선시”로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고심한 창작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이러한 주장을 실천에 옮겼다. 다산은 한시의 제약성을 타파하려는 시도밑에 조선 고유의 이두어와 민요의 울조를 대담하게 한시의 형식에 도입한 민요풍의 시가들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Ⅲ. 시가 작품의 사상적 내용

다산 문집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503권에는 23권의 시집이 망라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46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다산의 문학창작은 주로 한시 창작에서 나타났는데 이런 시가작품들은 그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문학사상의 예술적 구현이다. 다산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문학사상은 그의 문학창작의 이론적 기초로 되었으며, 그의 한시 작품들은 그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문학사상의 실천적 표현으로 되었다. 그는 한시 창작을 통하여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착한 것을 찬미하고 악한 것을 풍자하며”³⁶⁾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구제”³⁷⁾하려고 하였다. 때문에 그의 시가 창작의 사상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문도관의 “도”의 함의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다산은 농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사회현실적인 문제들에 지극한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심절한 동정을 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한 시들을 많이 썼다. “적석촌의 오막살이(奉旨廉察到積城村舍)”, “기민시(飢民詩)”,

35) “老人一快事, 縱筆寫狂詞 競病不必拘, 推敲不必遲 興到卽運意, 意到卽寫之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丁若鏞: 老人一快事)

36) “美刺勸懲”(丁若鏞: 寄淵兒)

37) “憂世恤民”(丁若鏞: 示兩兒)

“농촌기사(農村紀事)”는 그 대표작들이다.

고체시의 장시형식으로 되어 있는 “적성촌의 오막살이”는 다산이 경기도 암행 어사로 있으면서 적성촌에 이르러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처지를 목격하고 지은 것으로서 시에는 당시 농민들의 눈물겨운 생활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시냇가에 찌그러진 집 계딱지같은데
 새바람에 이영 견혀 서까래만 앙상하네
 묵은 재에 눈이 덮여 아궁이는 차디차고
 허물어진 벽틈으론 별빛이 비쳐드네³⁸⁾

시인은 서까래만 앙상한 농촌의 한 오막살이의 외형적 묘사로부터 시작하여 집 주인의 재산이란 조 서너 이삭과 고추 한 껍미, 깨어진 항아리, 무명이불 한채, 다 해진 옷가지 뿐이어서 굶기를 밥먹듯 하는 판에 판가에선 발가숭이 어린애들마저도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세를 받아가니 자식이라도 죽기를 원한다고 쓰고 있다. 시인은 이런 참상이 빚어진 원인은 다름 아닌 가혹한 수탈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악정, 학정 갖은 폐단 뿌리부터 안 뽑으면”³⁹⁾ 안된다고 호소하였다.

“기민시”는 다산의 시가창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이룩한 대표적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은 미증유의 자연재해로 하여 땅을 잃고 파산되어 도처에서 유리걸식하는 농민들의 비참한 정경을 묘사하고 부패한 관리들의 약탈성과 위선성을 규탄하였다.

풀인양 나무인양 우리 인생이
 물과 흙으로만 살아 간다네
 허리 구부려 땅의 털을 뽑나니
 이것이 먹고 사는 쌀이런가
 ……
 여원 목덜미는 목 늘어진 따오기인양

38) “臨溪破屋如癡鉢，北風捲茅 舊灰和雪 口冷，壤壁透星眼豁豁”(丁若鏞：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

39) “源亂本未正”(동상)

주름잡힌 검은 피부 병든 닭의 가족인양
 우물이 있다한들 물길어 무엇하랴
 땀나무 있다한들 불지피 무엇하랴
 ……

허구 많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건만
 여위어 뼈만 남고 병들어 숨만 붙어
 매마른 산송장이 기진맥진 쓰러지고
 거리마다 행길마다 유랑민 뿐이로세⁴⁰⁾

시인은, 이와같이 초목처럼 물과 흙으로 연명해가던 농민들이 비렁뱅이로 전락 되어 여위어 뼈만 남고 병들어 숨만 붙어 기진맥진 쓰러져 가는 참상을 묘사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어진 정사를 베푸듯이 떠들지만 기실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 부패한 관리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고을 사또가 어진 정사 한다기에
 쌀을 나눠주어 인정을 쓴다기에
 견고 또 걸어 고을 문에 이르러
 입을 쳐들고 죽가마로 모여든다
 개 돼지도 마다할 이런 것을
 사람이 달게 먹나니
 어진 정사를 하려고나 하였으랴
 쌀을 주려고는 하지도 않았더랴⁴¹⁾

시인은 또한 굶주려 쓰러지는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과 “주러 병든 자를 보고도 도리어 웃고만 섰는” 관료귀족들의 부화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빈부대립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을 보여 주었다.

40) “人生若草木, 水土延其支 傘焉食地毛, 菽粟乃其宜 ……

槁項鵠形, 病肉 皮 有井不晨汲, 有薪不夜炊 ……

林林生蒸民, 惟悴含瘡痍 槁孱弱不振, 道塗逢流離” (丁若鏞: 飢民詩)

41) 縣官行仁政, 賑恤云捐私 行行至縣門, 就湯 狗 棄不顧, 乃人甘如飴 (동상)

관가 창고를 악한이 엿보거니
 어찌 우리들이 굶주리지 않을소나
 관가 마구엔 마소들도 살찼구나
 이건 바로 우리들의 피땀이어라
 ……
 사또님네 문간안엔 주옥이 낭자하고
 풍악소리 울리면서 명기명창 맞아간다
 태평세월 만난듯이 회회락락 지껄이며
 대감님네 풍도라고 의적이 뽐낸다네⁴²⁾

“기민시”는 이처럼 조선 말기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일반화의 폭과 그것을 파헤친 심각성, 관료귀족에 대한 강한 비판의 기백 등으로 하여 한국 고전문학 사상 사실주의 시가 문학의 대표작으로도 꼽을만하다.

다산은 또한 각종 부패와 비리를 낳게 하는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고을 원님, 사령, 군노 수탈행위를 폭로한 시들을 많이 썼다. “애절양(哀絶陽)”, “범사냥(獵虎行)”, “술 뽑는 중(僧拔松行)”, “파지리(波池吏)”, “용산리(龍山吏)”, “해남리(海南吏)” 등은 이런 대표작들이다.

“애절양”은 조선 말기 군포제도로 하여 “절양”까지 하게 된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으로서 시대적 비극을 낳게 한 당대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고발하고 있다.

갈밭골 짙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고을 문 내닫다가 땅치고 통곡하네
 출정군인 징포란 있을 법도 하다면
 자고로 남절양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님 삼년상은 끝난지 오래고
 갓난 아이는 물도 아니 가셨는데

42) “官 惡人窺, 豈非我所 官廩愛馬肥, 實爲我膚肥 ……
 朱門多酒肉, 絲管邀名姬 熙熙太平象, 儼儼廊廟姿” (동상)

삼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신소하재도 관가 문지기가 호랑이 같더라
 이정놈의 호통바람에 외양간 단벌소가 끌려간다
 그는 문득 식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든다
 시뻘건 선지피가 방안에 가득
 어즈버, 아이 낳은 죄로 이 환난을 당했구나⁴³⁾

시인은, 죽은지 삼년이 지난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도 군적에 적혀 있고 갓난 아이는 낳자마자 군적에 등록되어 한 몸으로 삼대의 군포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데다가 농사밑천인 단벌소까지 이정놈이 강제로 빼앗아 가자 생식기까지 자르는 가난한 농민의 비극적 사건을 직설적으로 공소하고 있다.

“범사냥”은 범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는 구실밑에 호환(虎患)보다 더 무서운 고을원과 사령, 군노들의 수탈행위를 풍자적으로 쓰고 있다. 시는 산 깊고 숲 짙은 산골에 호랑이가 새끼쳐서 이른바 호환이 있게 되는데 대해 쓰고 나서 호환을 없앤다는 구실밑에 마을에 찾아들어 행패와 노략을 하는 관리놈들을 고발하였다.

원님 사냥 나온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웬걸 마을 사람들 도리어 질겁하네
 장정들은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고
 늙은이들 할 수 없이 포로처럼 붙들린다
 기세높은 군노놈들 집집마다 싸다니며
 나팔불고 피리불며 야단법석하는구나
 닭 잡고 돼지 삶아 온마을 들썩이고
 쌀 찢고 초석 갈아 대접하기에 동네 사람 넋을 잃네⁴⁴⁾

43) “蘆田少婦哭聲長，哭向縣門號穹蒼 夫征不復尙可有，自古未聞男絕陽
 舅喪已縞兒未，三代名籤在軍保 薄言往 虎守，里正咆哮牛去卑
 磨刀入房血滿席，自恨生兒遭窘厄”(丁若鏞：哀絕陽)

44) “前驅 出一村驚，丁男走藏翁被虜 小校臨門氣如虹，亂 紛似雨
 烹鷄段瘠殖四，糧設席走百堵”(丁若鏞：獵虎行)

이처럼 고을원이 호환을 없애려 오자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 하는 대신 도리어 질겁하며, 고을원은 마을에 도착하자 범사냥에 앞서 재물의 약탈에 미쳐 날뛰는 진짜 “호환”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시인은, “호환은 고작해야 한 두 사람 상하거니 어이 천백만 사람들이 이 환난을 당할소냐”⁴⁵⁾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원성(冤聲)을 다음과 같이 쓰면서 시를 맺고 있다.

흉악한 관리놈들 밤중에 문 두드리면
아 소름끼치고 치가 떨려라
차라리 남은 호랑이 문간에 세워두고
오는 관리 막았으면⁴⁶⁾

두보(杜甫)의 “삼리(三吏)”에 차운하여 지은 “과지리”, “용산리”, “해남리”는 그의 정론문 “간리론(姦吏論)”의 사상을 예술화, 형상화한 작품들로서 조선말기 관리들의 만행과 본질을 비판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이밖에도 다산은 “송충이(蟲食松)”, “이노행(狸奴行)”, “승냥이와 이리(豺狼行)” 등 동물에 의인화(擬人化)의 수법으로 쓴 풍자시들에서도 조선사회 말엽의 부패관료들의 폭행을 신랄하게 풍자 비판함으로써 강한 비판적 기백을 보여주었다.

다산은 실학사상가로서 조선말기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평생을 경주하였다. 그는 그의 개혁사상을 이론화한 많은 논저들을 썼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형상화한 한시들도 적지 않게 창작하였다. “하일대주(夏日對酒)”, “고시(古詩)” 등은 그 대표작들이다.

“하일대주”는 5장 212행으로 구성된 서정서사적 성격을 띤 장시이다. 이 시는 “진론”, “환자론(還子論)”, “서얼론(庶論)”, “감사론(監司論)” 등 그의 정론(政論)들에서 제출한 사회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한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봄들어 좀 먹은 쌀 한 말 안기고

45) “猛虎傷人止一二, 豈必千百罹此苦” (동상)

46) “生憎悍吏夜打門, 願留餘虎以禦侮” (동상)

가을에는 두 말 빼앗아 간다
 하물며 돈 내어 좀 먹은 쌀 값으라니
 옥백미 두 말 팔아도 모자란다네
 그리하여 남은 건 관리만 살찌워
 한번 고을살이에 백만장자 되누나 47)

이것은 작품에서 환자제도의 피해와 불합리를 폭로한 장절의 한 부분이다. 꾸어 먹은 좀 먹은 쌀을 돈으로 값기 위해 옥백미 두 말을 팔아도 모자라는 환자제도의 고리대적 착취를 밝히고 농민들이 전세(田稅)에 의한 현물지대(現物地代) 외에 화폐지대와 고리대형태의 착취까지 받게 되는 착취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시인은 계속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응당 열경씩 나누어 주어 다같이 고루 살게 해야 한다”⁴⁸⁾ 고 하면서 “토지 표분론”의 사상을 형상화하였다. 이 시는 토지제도, 군포제도, 환자제도 등의 약탈성, 반동성을 비판하고, 문벌제도에 의한 신분차별, 지방차별, 적서차별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형상적 화폭으로 생동하는 필치로 보여준, 다산 창작계열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 작품이다.

다산은 일생동안 큰 뜻을 품고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코자 게으름 없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암흑한 현실은 시인의 뜻을 알아줄 리 만무하였다. 이상과 재능을 억눌러온 시인은 야속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울적한 심회를 토로한 자탄시들도 적지 않게 썼다. “古意”, “심심풀이(遣悶)”, “시름에 겨워(遣憂)”, “시름에 쌓여서(憂來)” 등 시들에서 시인은 “비끓어 업혀진 세상 일(紛紛眼前事)”을 통탄하면서 시인의 우국지정(憂國之情)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들은 종래의 자탄시들과는 달리 감상적인 정서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시인의 감정과 함께 “상서로운 서광 온 누리에 펼치도록 천길만길 은하수 쏟아 말끔히 씻으려”⁴⁹⁾ 시인의 굳은 의지와 버릴 수 없는 포부를 표현한 특징들이 있다.

47) “春受一斗，秋穀二斗金以錢代，豈非賣穀錢
 餘肥姦滑，一宦千傾田”(丁若鏞:夏日對酒)

48) “應須家十頃，飢飽使之同”(동상)

49) “將萬斛銀黃洗，瑞日舒光照入”(丁若鏞:古意)

다산은 민족감정과 정서가 높은 애국애족의 감정이 넘치는 시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감정, 정서들은 그의 작품에도 깊이 표현되어 있다. “추풍령을 넘으며(逾秋風嶺),” “축석루회고(矗石樓懷古),” “웅진회고(雄津懷古),” “확연폭포가(淵瀑布歌)” 등의 풍물시, 회고시들에서는 시인의 애국애족의 감정, 조국 산천경계에 대한 무한한 긍지들이 역력히 안겨 온다. 그는 “추풍령을 넘으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태백산, 소백산 산세도 장하구나
달리던 용이 머리 여기서 수그러
물은 북쪽으로 황간수 흘러가고
산은 서쪽으로 적상산 뻗어 있네
봉마다 우뚝우뚝 성벽을 쌓았다만
이 영이 요새임을 그 누가 알리
청주 너른 들이 천리에 펼쳤으니
추풍령 ▲앗기다간 먹살을 잡히리라 ⁵⁰⁾

시인은 추풍령을 넘으며 굽어본 태백산, 소백산의 웅장한 기상과 임진왜란 때 추풍령을 버리고 참패한 역사적 사실을 감회 깊이 노래하면서 애국적 감정을 토로 하였다. 다산의 이와같은 회고시들은 종래의 고답적이며 관조적인 풍물시와는 달리 나라의 금수강산과 역사적 유적들에 의탁하여 나라 강토와 산천에 대한 끝없는 사랑, 민족 영웅들에 대한 추모, 외래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 안일만 탐내고 국토 방위에 무관심했던 관료들에 대한 비판과 시인의 우국개탄(憂國慨嘆)이 한데 어울려 질절한 애국애족의 정서로 흘러 나온다.

IV. 시가 작품의 예술성

다산은, 그의 한시 창작에서 이룩한 높은 사상적 성과와 더불어 독특한 창작 개

50) “二白飛騰背勢強, 神龍於此地中藏. 溪通北地趨黃澗, 山出西枝繞赤裳.
每向高峰增壘壘, 誰知平陸是關防. 淸州大野開千里, 據秋風嶺便抗.” (丁若鏞: 逾秋風嶺)

성으로 하여 높은 예술적 재능을 과시하였다.

우선 다산은 한시 창작을 통하여 자기가 처해 있던 시대와 현실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시대적 비폐와 모순을 포착하고 그것을 한시 창작에 사실주의적으로 재현시켰다. 그는 18세기말 - 19세기 초의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적 갈등과 조선말기의 심각한 위기를 시대적 안광으로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한시 창작의 소재로 도입함으로써 생동하는 시대적, 역사적 화폭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감상하며 역사적 장면을 생동감 있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다산은 그의 수많은 사회 정치적 소재의 작품들인 “적성촌의 오막살이”, “기민시”, “술 뺨는 중”, “범사냥”, “어부(漁夫)”, “남여군의 탄식(肩輿嘆)”, “버린 아이(棄兒)”, “용산리”, “파지리”, “해남리”, “승냥이와 이리” 등의 작품들에서 조선말기 당시 통치제도의 각종 비폐와 관료들의 가혹한 수탈로 조성된 암울한 사회상과 극도로 황폐화되고 영락한 농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술적 화폭에다 땅을 잃고 도처에서 유리걸식하는 농민들의 군상, 가난에 쪼들려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는 농부와 어부, 양친부모를 잃고 길에서 헤매는 고아, 마소나 다름없는, 뼈빠지게 일하는 관가집의 머슴 등 사회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최하층 인간들의 형상과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부화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 부패관료를, 야수와 같이 백성을 못살게 하는 포악한 관리들의 형상을 사실주의적인 화폭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다산은 한시 창작에서 당시의 사회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다양한 묘사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실주의 전형화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다산의 한시창작에서 널리, 그리고 능란하게 구사한 예술적 수법으로 우선 대조적 수법을 들 수 있다. 한시창작에서 대조의 수법은 한국고전시가사에서 우수한 전통으로서 한시대가들에 의하여 구사되어 왔다. 다산의 대조적 수법의 사용은 그야말로 능란하였다. 그는 제목 설정으로부터 형상창조와 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종다양하게 대조적 수법을 구사하고 있으며 생동하는 형상창조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생활현상과 인간 전형들을 대조적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회정치적 주제의 시가들에서 독특한 특징으로 되고 있다. 그는 “기민시”에서 “거리마다 행길마다” “여위어 뼈만 남아” “메마른 산 송장” 같은 유랑민들의 참담한 처지를 “태평세월 만난듯이” “풍악소리 울리고 명기명창

맞아다가” 부화방탕한 나날을 보내는 관료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남여군의 탄식”에서는 “줄에 패인 어깨, 상처나 혈미되고”⁵¹⁾, “숨가빠 숨통에서 단내가 타올라”⁵²⁾ “신음소리에 목숨이 실갈같은”⁵³⁾ 남여군들의 “마소나 다름없는”⁵⁴⁾ 생활을, 남여를 타고 채찍질하며 좋아라고 히히닥거리며, “이러한 즐거움을 으뜸으로 치는”⁵⁵⁾ 고을 아전들의 행위와 대조시켜 묘사함으로써 두 계급의 판이한 생활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였다.

그의 이러한 수법은 묘사과정에도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구절과 구절, 연과 연(連) 사이에도 적절하게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구적 형식을 이룬 대조적 수법이 돋보인다. “공주창고의 환자곡식(公州谷倉)”은 부동한 계층의 판이한 생활을 대구적 방법으로 묘사를 하였다.

쓸쓸한 촌가에는 여우토끼 뛰노는데
 사또님 문간안엔 마소들도 춤을 추고
 여염집 뒤주에는 해넘길 것 없는데
 관가집 창고에는 겨울식량 풍성하고
 궁민들의 부엌에는 눈서리만 쌓였는데
 양반님네 밥상에는 수육진미 쌓여 있다⁵⁶⁾

이와같이 대구적 수법을 숨씨있게 사용하여 묘사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사회의 모순을 심각하게 반영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농민 등의 하층계급을 동정하고 부화한 관료들을 증오하게 하였다.

묘사대상과 현상의 본질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하여 풍자적 수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산 한시 창작의 예술적 특징으로 된다. 그의 풍자적 수법은 은유적인 풍자가 아니라 풍자대상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틀어쥐고 보다 직

51) “歷 肩有癢”(丁若鏞:肩輿嘆)

52) “喘息雜湍瀑”(동상)

53) “呻吟命如縲”(동상)

54) “與驢馬伍”(동상)

55) “此樂必先數”(동상)

56) “白屋狐兼兔, 朱門馬似龍 村 無卒歲, 官 利終冬
 窮 風霜重, 珍盤水陸供”(丁若鏞:公州穀倉)

접적인 직유의 방법으로, 흔히 동물에 의탁한 의인화의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데 있다. 그는 “고양이놈의 행장”, “송충이”, “승냥이와 이리”, “오징어와 해오라비(烏魚行)”, “솔피와 고래(海狼行)” 등의 풍자시들에서 부패한 관료의 비행을 쥐와 한 동아리가 되어 나라의 재물을 훔쳐 먹는 고양이때, 온 산의 솔잎을 갉아 먹고 사는 가증스런 송충이 때, 어둠을 이용하여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모기 때, 주둥이에 피칠하고 백주에 거리를 싸다니며 사람을 해치는 흉악한 승냥이, 먹물을 뿜어 놓고 고기들을 속여서 잡아 먹는 교활한 오징어, 아귀다툼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솔피와 고래 등에 비유하여 그들의 위선적이고 야수적이고 탐욕적이고 교활한 본질을 풍자조소하였다.

다산의 시에는 서사적 요소들이 많이 도입된 서정 서사시적 형식을 취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생활의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위한 그의 특징적인 시가형식의 하나이다. 그의 많은 시가작품들은 사회생활에서 작자가 직접 보고 들은 가장 특징적이며 전형적인 사건들을 서정시 속에 소화시켰으며 아무리 광활한 서사적 화폭일 지라도 그것을 서정시 속에서 용해시켰다. 그의 “기민시”, “애절양” “솔뽀는 중”, “농촌기사”, “용산리” 등은 당시 실재한 비극적 사건들을 서정시 속에 시화(詩化)한 것으로서 이런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그는 “용산리”에서 사나운 관리들이 농가에 들이닥쳐 농민의 단벌소를 마구 빼앗아 가는 처참한 광경을 서사시적으로 묘사하면서 서정적 주인공의 분노에 격발된 감정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나라의 혜택이란 내린 적이 있었더나
만민의 목숨은 땅바닥에 쓰러지고
궁박한 이 생활은 너무나 서러워라
죽어 없어짐이 차라리 나으리라⁵⁷⁾

여기서 우리는 농민들이 당한 억울한 참상을 애달파하며 흘리는 시인의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되며 살아서 죽기보다 못한 사회죄악에 대한 시인의 분노의 외침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그의 많은 시들은 서사적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였음에도

57) “德音競不至，萬民相枕死
窮生僅可哀，死者寧矣” (丁若鏞：龍山吏)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과 인물을 시인 자신의 강렬한 주정 토로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서정 서사시의 특성을 더욱 잘 살리고 있으며 독자들의 강렬한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한시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제약성을 타파하려는 시도밑에 한국 고유의 민요의 언어와 율조를 대담하게 한시의 형식에 담은 것은 다산 시가의 또 하나의 예술적 특성으로 된다. 그는 장기간의 유배생활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으며 당시 민간에서 널리 부르고 있던 민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로 하여금 시가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게 하였다. 그는 한국 민요의 풍부한 예술적 특징들을 옹기 씌워하여 한시창작에 인입시켰다. “장기농가”, “탐진농가”, “탐진촌요”, “탐진어가”, “보리타작” 등 50여 수의 악부시(樂府詩)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다.

못 노래는 구성지고
 눈물은 찰랑찰랑
 저 아가씨 거동 보소
 왜 저리도 수줍은고
 하얀 모시 진솔 적삼
 노란 모시 긴 적삼을
 의농안에 개어 놓고
 팔월추석 고대하네⁵⁸⁾

이것은 10절로 구성된 “장기농가”의 제1절이다. 그는 여기서 풀 모시로 짠 옷 이나마 팔월추석날을 위해 의농 속에 개어 놓고 남루한 옷을 입고 수줍어 하며 눈 김매는 농촌아가씨의 근로하고 아름다운 서정세계를 경쾌한 율조속에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마치 독자들은 무연한 논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김매는 농촌 아가씨와 농촌의 풍경화를 보는 듯도 하다. 시인은 이러한 민요풍의 시들에서 한국 식의 한자어들이 “보리고개(麥嶺)”, “대감(大監)”, “아가씨(兒奇)”, “침지(衾

58) “秧歌哀婉水如油，嗔怪兒哥別樣羞
 白新黃，籠中十襲待中秋”(丁若鏞：長農歌)

知), “반상(盤床)”, “높새바람(高鳥風)”, “마파람(馬兒風)” 등과 같은 고유어들을 소중히 살려씀으로써 한국 한시문학의 신선한 맛을 보여주었다.

다산의 시는 그 주제가 광범한 것처럼 시가 형식도 다양하다. 그는 시가창작에서 언제나 내용을 선차적인 자리에 놓고 그 내용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형식을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그는 절구(絶句), 율시(律詩), 고시(古詩), 장단구(長短句) 등 한시의 여러가지 형식의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작시법이 비교적 자유롭고 용량이 클 수 있는 장편고시 형식을 많이 창작하였다. 이것은 4언고시의 형식이 한시의 역사 발전에서 가장 일찍 형성된 시가 형식으로서 작시법이 훨씬 자유로워 작가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달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며 현실을 보다 폭넓게 재현하려는 작가의 창작태도와도 관련된다. 다산은 이밖에도 시경체(詩經體), 초사체(楚辭體), 부(賦), 명(銘), 송(頌), 찬(讚), 만가(輓歌) 등의 문체들은 적지 않게 창작하여 그의 시적 재능을 다방면적으로 과시하였다.

V. 결론

다산은 한국 중세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일뿐 아니라 시가 창작에서 이룩한 뛰어난 성과로 하여 한국 고전문학사상 위대한 작가로 손색이 없다.

그가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그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문학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조선 말기에 다산은 실학사상에 입각하여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였다. 다산은 문학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개조와 개혁에 “쓸모있는 학문(實用之學)”으로 간주하고 일부 “순정(醇正)”의 문학을 비판하고 “물태와 인정”, “재도지기(載道之器)” 등 명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와 참신한 견해들을 제출함으로써 한국고전문학이론을 가일층 풍부하게 했다. 다산의 문학이론은 한국고전문학이론의 보귀한 유산이다.

다산의 문학사상은 그의 시가창작의 직접적 지침으로 되었던 바 그의 시가창작은 그의 문학사상의 예술적 구현이었다. 다산은 조선 말기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시가창작에서 전면적으로, 심각하게 내세움으로써 당시의 낙후되고 침체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상에 대해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가작품은 붕괴기 조선사회의 사회정치적 갈등을 심각하게 보여줄 수 있

있으며 그 시대의 전형인간을 형상화할 수 있었다. 다산의 시가작품은 시대의 화폭이며 역사의 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실주의적이었는데 다산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다.

다산의 문학창작은 그의 사회정치적 견해와 문학적 견해의 예술적 구현이었다. 그래서 다산의 시가작품들은 메마른 정치구호가 아닌 생생한 예술적 화폭이었으며, 시가에서 광활한 화폭, 그에 따른 치밀한 예술기량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다산의 시는 한국 한시 창작의 주제영역을 크게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시 창작의 다양한 예술적 수법도 신장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은 한국고전문학사의 만기를 찬란하게 장식한 위대한 문학가로 손색이 없다.

다산의 문학창작은 물론 자체의 이러저러한 제한성과 약점도 보여주고 있다. 국문학 작품 창작의 멸시와 시가창작에서의 함축성과 시적 여운의 부족 등은 결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그가 관료 출신의 문인이며 문학창작에서 내용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사회정치적 견해 및 문학적 견해의, 두 측면에서의 일부 약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선문학간사』, 박충록, 연변교육출판사, 1988.
- 『조선문학사』, 김일성종합대학어문학부,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0.
- 『조선문학사』, 허문섭, 연변인민출판사, 1985.
- 『한국고전시학사』, 전형대·정요일·최웅·정대림, 홍성사, 1979.
- 『한국문학사상사』, 金相洪·梁光錫·申用浩, 계명문화사, 1991.
-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조동일, 지식산업사, 1978.
- 『한국문학통사』, 조동일, 지식산업사, 1984.
- 다산 정약용의 창작과 문학적 견해, 신구현, 다산 정약용 탄생 2백주년 기념
논문집, 과학원 철학연구소, 1962.
- 丁茶山の文學觀, 최신호, 한국한문학연구회, 한국한문학연구, 1976. 8.
- 茶山詩文選(附牧民心書), 金智勇 譯, 大洋書籍, 1972.
- 茶山丁若鏞 文學研究, 金相洪, 단국대출판부, 1985.

Abstract

Study on Jung Da-San's view of literature

Lee, Sun-Han

Da-San's thought of literature was embodiment of artistic quality by poems creation.

Da-San supported most pressing social-political problem of the late Yi Dynasty era at poems creation. So, he tried to express vision of social reform. Therefore his works supported pressing social-political trouble of Yi Dynasty era. And his works was able to figure a type man of the period.

Da-San's poems works was realistic as a picture of period, a reduced drawing of history.

Da-San's literature creation was embodiment of his social-political opinion, view of literature by artistic quality. So, Da-San's poems works was fresh picture of art. He displayed ability of art at his works.

Da-San's works was big extension of subject area of Korea Chinese poetry creation. And he extended artistic skill of Chinese poetry creation. So, Da-San is great author that brightly decorated the late of Korea classic literature history.